

해외진출 우수사례

남아메리카

(멕시코, 칠레)



남아메리카

2023년 우수사례



멕시코

멕시코시티GBC	멕시코 공략으로 미국·중남미 시장까지 넘본다_ (주)진광	3
	디지털 치과치료 솔루션으로 세계 진단의료기기 선도_ (주)레이	5



칠레

산티아고GBC	현지화 지원으로 칠레 시장에 안착_ 제네시스에너지솔루션(주)	7
	현지화 맞춤 지원에 화장품·방역물품 수출 UP!_ (주)테트라씨	9

2024년 우수사례



멕시코

멕시코시티GBC	미니 프린터 강자, 멕시코 시장서 신홍 강자로 부상_ (주)세우테크	11
	신제품으로 남미 매출 20% 신장 목표_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	13



칠레

산티아고GBC	GBC 올라타고 칠레 항공 누빈다_ (주)한컴인스페이스	15
	K-태양광 기술, 칠레 전력공급 해결사로 우뚝_ 제네시스에너지솔루션(주)	17





멕시코시티GBC

㈜진광

대표이사 이승재

주생산품 자동차부품

설립 2004년 11월

홈페이지 www.jinkwang.com

멕시코 멕시코시티GBC 입주

2016년~2020년

멕시코 공략으로 미국·중남미 시장까지 넘본다



우리 회사는

- 1978년 설립된 엔진용 부품 제조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동력전달장치를 자체 생산하며 기술력을 쌓았다. 열처리 및 가공 기술 노하우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변속기 클러치류, 기어류, 동력전달장치 등 엔진용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5년 백만불 수출의 탑을, 2006년 천만불 수출의 탑을 받았다. 현재 20여 종의 특수 제품을 유럽, 미국, 캐나다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글로벌을 준비하다

-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북미 및 중남미 시장과 가까우며 대다수 국가와 FTA를 맺고 있어 수출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멕시코 부품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USMCA(舊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수출 관세가 없으며 남미 공동시장과는 자동차 무역협정을 별도로 맺어 이들 국가에 수출할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 무엇보다 멕시코는 세계 4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대다수 글로벌 완성차 기업 및 계열사들이 진출해 있다. 저렴한 노동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북미와 중남미 사이에 자리 잡은 지리적 이점으로 32개 완성차 업체가 진출해 있다.
- 다만, 자동차 1차 협력사가 한곳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영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이에 중남미 시장에 새로 진출하기 위해 주요 활동 거점이자 중심지인 2016년 멕시코시티GBC에 입주해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돌입했다.



해외거점을 만나다

- 2016년 멕시코시티GBC 입주와 동시에, 현지 시장조사 및 마케팅을 위해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위해 법인 설립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
- 멕시코시티GBC를 거점으로 멕시코시티 자동차 산업 부품 엑스포, 무역사절단 연계형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하고 1:1 바이어 상담 등을 지원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폈다. 그 결과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다.
- 현재 씨아이이 오토모티브(CIE Automotive)의 멕시코 공장에 11가지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 관련 견적 문의를 꾸준히 받고 있다.
- 멕시코에 진출한 글로벌 Tier1, 2 기업에 연간 단조 샤프트 등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멕시코시티와 자동차 생산기지인 누에보레온, 푸에블라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래를 열다

- 멕시코 거래처로부터 현지 진출을 지속해서 요청받아 현재 회사인 진광모비코(주)를 통해 멕시코시티GBC에 새로 입주해 현지 공장 신축을 검토하고 있다. 멕시코 시장은 단조 제품의 자체 생산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내부 검토 후에 단조, 열처리, 금형 및 가공 생산시설까지 현지에 설치할 계획이다.
- 자체 공장을 확보하면 연간 단조를 통해 스테르프 샤프트, 요크 및 플렌지 요크 등을 생산해 바이어가 요구하는 양질의 제품을 가까운 현지에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할 수 있는 JIT 시스템을 갖추게 돼 글로벌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멕시코시티GBC

레이

대표이사 이상철

주생산품 치과용 엑스레이 진단 장비

설립 2004년 10월

홈페이지 www.raymedical.co.kr

멕시코 멕시코시티GBC 입주
2016년 12월~현재

유일한 디지털 치과치료 솔루션으로 세계 진단의료기기 선도



우리 회사는

- 치과용 의료기기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이다. 치과용 컴퓨터단층촬영(CT)의 영상재구성 알고리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2017년 디지털 치료솔루션을 론칭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진단시스템과 치료솔루션 라인업을 구축했다.
- 핵심 기술과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2015년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유럽, 대만,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재 세계 70개국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거두고 있다.

글로벌을 준비하다

- 국내 시장은 디지털 방식이 빠르게 보급되어 상당수의 치과에서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외시장은 아직 디지털 방식 치과용 엑스레이 시스템의 보급률이 저조한 상태다. 미국 시장은 약 10%, 중국 시장은 약 5%에 불과하다.
-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이 디지털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임을 포착하고 2015년 미국을 필두로 해외시장 개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인지도가 낮아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제품을 사용한 병원을 중심으로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 그런데 치과용 방사선 촬영 장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함은 물론, 국가별 인증을 획득해야 하므로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현지에서 매출이 날 때까지 견디려면 다양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중남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여러 지원을 받기 위해 멕시코시티GBC에 입주하게 됐다.



해외거점을 만나다

- 다행히 멕시코시티GBC에 입주 후 전반적인 중남미 시장정보를 제공 받았으며 다수의 잠재 바이어들과 상담과 미팅을 진행했다.
- 또한 중남미에서 열리는 여러 국제전시회와 로컬 전시회에 참가하며 많은 대리점을 발굴해 짧은 기간 내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 멕시코시티GBC에 입주하기 전인 2015년 1,5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16년에는 1,8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9,500달러로 540% 성장했다. 매출액 역시 2015년 230억 원에서 2016년 260억 원으로 늘었으며 2022년에는 1,28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2016년 일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이후 2019년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2022년에는 오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미래를 열다

- 세계 치과용 콘빔CT(CBCT) 시장이 2020년 3억 9,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13.4%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8년 10억 8,0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치과용 엑스레이 시장의 성장률을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임플란트 등의 치과 수술에 고화질, 고품질 CT 이미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자사는 이 분야에서 리딩 기술력을 보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중남미에 이어 최근 중국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현지법인 설립에 이어 지난해 중국유통 업체 인수까지 완료하였으며 올해 생산시설을 착공해 현지화를 통한 중국 매출 및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네시스에너지솔루션㈜
(현지법인 시너텍)

대표이사 박건태

주생산품 태양광 설비

설립 2021년 2월

홈페이지 <https://synertec.cl>

칠레 산티아고GBC 입주
2021년 7월~현재

산티아고GBC

현지화 지원으로 칠레 태양광 시장에 안착



우리 회사는

- 태양광 발전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 제조 기술 기반으로 설립된 EPC(설계, 조달, 시공) 전문기업이다. 칠레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태양광 PV 모듈 및 인버터, 태양광 구조물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칠레 현지법인 '시너텍'은 설비시공 기술뿐만 아니라, 현지 전력조합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다국적기업 중심의 칠레 태양광산업 분야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을 준비하다

-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커지면서 태양광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칠레는 태양에너지 산업에 특화된 아타카마 사막을 보유하고,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 2050년까지 자국 전력 발전량의 70% 이상을 친환경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실제 칠레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12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칠레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초과했다.
- 자사의 태양광 설비시공 기술이 주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현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칠레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그 첫걸음으로 2021년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다.
- 하지만 중소기업으로서 현지 시장 인프라와 관련 정보 부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현지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과 적합한 마케팅, 사업 수주를 위한 법률검토 등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 이에 칠레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티아고GBC에 입주했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개척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해외거점을 만나다

- 산티아고GBC에 입주한 후 현지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칠레 진출 초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공동 회의실을 활용해 바이어 미팅을 전개했으며, 무엇보다 현지에서 사업을 수주하는 데 필요한 제반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지원받아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에 한 걸음씩 다가갔다.
- 산티아고GBC의 후속 연계 지원으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1억 원을 받았으며 수출바우처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GBC의 특화사업인 현지 네트워크 연계 협력으로 아타카마전력조합과 연결되어 현지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
-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아타카마지역에 2곳*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수주 및 준공해 2022년에 192만 6,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2021년 수출이 12만 7,000달러였으니, 산티아고GBC 입주 후 수출액이 1,416%나 늘어났다.

* Camar 태양광 프로젝트 준공(140KWp 규모), Atacama 태양광 프로젝트 준공(2MWp 규모)

미래를 열다

- 성공적인 태양광발전소 준공 역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측면 지원을 통해 현지 정부기관(아타카마 시정부) 및 전력조합(CESPA)과 높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규모 프로젝트인 ALMA 천문대 태양광사업권(8,000만 달러 규모)도 확보했다.
- 최근 ALMA 천문대 태양광발전 사업을 국내 에너지 공기업과 공동협력 프로젝트로 추진하고자 협의 중이며, 향후 남미 다른 국가의 태양광사업을 수주하는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테트라씨
 (현지법인 Importadora
 Tetra-C Chile Ltda)
 대표이사 이재걸 박한일
 주생산품 화장품, 방역물품
 설립 2016년 9월
 홈페이지 www.kosmeticos.cl
 칠레 산티아고GBC 입주
 2016년 12월~2022년 3월

산티아고GBC

현지화 맞춤 지원에 화장품·방역물품 수출 UP!



우리 회사는

- 국내 화장품 및 의류기기를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시장으로 수출하는 전문기업이다. 2016년부터 칠레에 법인을 설립해 중남미 판매망을 구축하고 국내 화장품 등을 유통하는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형성하고 있다.
- 남미의 섬으로 불릴 정도로 독특한 칠레의 화장품 시장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화장품 브랜드를 다수 확보해 한국과 칠레 화장품 고객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글로벌을 준비하다

- 약 1,800만 명 인구의 칠레는 단일시장으로서 매력이크지 않아도, 남미 국가 중 1인당 국민 소득 및 화장품 구매액이 가장 높아,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인 로레알, 에스티로더, 맥 등이 남미 시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 한류 문화 확산으로 인해 남미 지역 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있다. 하지만 칠레지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반드시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지 식약청에 품목별 모든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장벽으로 작용한다. 또, 초기에 인프라 부족, 낮은 신뢰도, 과도한 초기 투자 비용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직접 진출하기에 쉽지 않은 시장이다.
- 현지 대형 유통채널의 경우 우리나라 유명 화장품에 한정해 직접 수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유통업체가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를 발굴해 식약청에 제품을 등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자사는 산티아고GBC의 인프라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해외거점을 만나다

- 산티아고GBC의 지원으로 2016년 12월, 칠레 현지에 법인(Importadora Tetra-C Chile Ltda)을 설립하고, 법률 자문으로 수입 인증 등 칠레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무사히 해결하며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 산티아고GBC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칠레 대형 유통업체, 칠레 보건부, 독립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화장품 및 의류기기 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이후 인플루언서 마케팅, 현지 바이어 간담회 등을 지원받아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 그 결과, 남미 대형 온라인 쇼핑몰(Mercado Libre)을 비롯해 40여 개 매장을 보유한 T사, 25개 매장을 보유한 B사, 8개 매장을 보유한 M사 등 칠레의 3대 백화점 마켓 플레이스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 코로나19 팬데믹에는 저가저품질의 중국산 제품을 밀어내고, 칠레 보건부에 우수한 품질의 국내 방역물품을 납품하는 데 성공했다. 2020년 90만 달러 규모의 검체 키트를, 2021년 100만 달러 규모의 의료용 피펫을 납품했다.
- 이 같은 행보를 통해 2019년 20만 7,000달러이던 수출액이 2022년 84만 3,000달러로 꺾총 뛰며 약 307% 증가했다.

미래를 열다

- 2022년 Modatex Group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아르헨티나에 진출했으며 이를 통해 식약청 등록 등을 전개하고 2023년 말 제품 수출을 앞두고 있다.
- 칠레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 시장에서 지속해서 점유율을 높이며 온라인 채널 및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10월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3호점까지 개소한 상태다.

(주)세우테크

대표이사 서문동근
주생산업 미니프린터
설립 2016년 2월
홈페이지 www.a-root.co.kr
멕시코 멕시코시티GBC 입주
2021년 12월 ~ 현재

📍 멕시코 멕시코시티GBC

(주)세우테크

미니 프린터 강자, 멕시코 시장서 신형 강자로 부상



매출액

지원 전 (2023)



458억
1,000만 원



지원 후 (2024)



500억 원
(잠정)

수출액

지원 전 (2023)



1,665만
4,000달러



지원 후 (2024)



1,850만
4,000달러(잠정)

- GBC 지원으로 **멕시코 현지 조기 정착**
- 43만 달러 규모의 멕시코 **Sanborns 프로젝트 수주**

🏢 우리 회사

- 세우테크는 에이루트 그룹사에서 프린터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 국내 최초로 영수증 발행을 위한 프린터를 개발, 품질의 우수성을 세계 70여 개국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 미니프린터 분야에 지속 투자해 POS용 Dot Impact프린터, Thermal 프린터를 제조, 판매해 왔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 물류/택배용 라벨 프린터, 다양한 크기의 모바일 프린터, Smart AIDC 등 다양한 제품과 액세서리를 지속적으로 개발, 판매하고 있다.

🌐 해외거점과 함께!

-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세우테크는 남미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멕시코를 중남미시장의 거점으로 삼고자 멕시코 현지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 지사 설립 초기에는 인력 부족과 투자에 따른 리스크 등의 애로를 겪었으나 GBC 인큐베이터 사업을 통해 차근차근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 사업 초반 멕시코 내에서 안정적으로 입지를 다질 때 시장조사, 법률, 노무 자문 등을 지원해 준 멕시코시티 GBC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또한 사무실 임차, 인력 지원, 전시회 참가 등의 지원 덕에 멕시코 시장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었다.
- 코카콜라, 경찰청 등 정부 프로젝트 등 무수히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멕시코의 초대형 그룹사인 Grupo Carso의 대표적인 소매 체인점으로 레스토랑과 백화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Sanborns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멕시코 내 대형 고객인 Sanborns 프로젝트에 업계의 모든 경쟁사가 도전했으나, 당사 파트너와 고객 측의 유대

- 감 형성,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 2024년 POS 프린터 약 500대와 POS 시스템 약 700대를 Bundle로 공급하며 단일 프로젝트로 43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거두었다.

🌐 Go! Global

- 멕시코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원 총원과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멕시코 시장의 풍부한 잠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남미 시장을 향한 거점으로 공격적인 비즈니스 마케팅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토털 하드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업체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GBC와 함께 글로벌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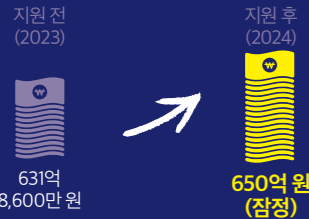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
 대표이사 이인규
 주생산업종 초음파 진단기기
 설립 2007년 4월
 홈페이지 www.alpinion.co.kr
 연계지원 (특화)2023년 멕시코 바이오헬스 인증 획득 및 현지화 지원사업, 공유오피스

📍 멕시코 멕시코시티GBC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

프리미엄 신제품으로
 남미 매출 20% 신장 목표



매출액



수출액



- 멕시코 식약처에 X-CUBE에 대한 위생등록 완료
- 2023년 11월 멕시코 최대 산부인과 학회 현장에서 3대 판매 계약 체결

🏢 우리 회사

-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와 치료기를 자체 개발해 국내 생산하는 초음파 전문 기업으로, 세계 초음파 의료기 시장의 선두권 진입을 위해 고가 라인업을 확대하며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 최근 영상 기술 발전에 힘입어 고해상도 영상 구현과 객관적인 진단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 및 치료 분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해외거점과 함께!

- 중남미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이 중 멕시코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시에 두 번째로 큰 의료기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기업의 매출과 사업 확장에 아주 중요하다.
-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멕시코 식약처(COFEPRIS)의 등록 절차가



바뀌어 시장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신제품을 출시해 등록을 신청했으나 현지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의료기기 특성상 위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등록 완료까지 오랜 기간 제품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기다려야 했다.
- 그때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멕시코 바이오헬스 분야 인증획득 및 현지화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 그 결과 2023년 6월, 빠르게 멕시코 식약처 등록을 확보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수출액 증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 또한 멕시코시티GBC의 도움을 받아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해 신제품 X-CUBE 라인업을 홍보했으며 현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 X-CUBE 90 모델을 주요 Key opinion leader에게 소개

하고 사전 평가를 진행했으며 동시에, 2023년 11월 멕시코 최대 산부인과 학회에 참가해 현장에서 산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장비 시연을 전개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 3대의 신규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Go! Global

- GE헬스케어, 필립스, 지멘스를 비롯해 캐논, 마인드레이, 히타치 등이 1~2군에 포진해 있는 초음파 의료기기 시장에서 선두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가 라인업을 강화해 선진국과 대형병원 시장에 진입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가동할 계획이다.
- 2023년 말 출시한 알피니언의 플래그십 모델 X-CUBE 90 with Elite와 고급형 포터블 장비 X-CUBE i9를 필두로 남미 시장 20%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GBC와 함께 글로벌 UP

(주)한컴인스페이스

대표이사 최명진
 주생산업 위성, 드론 영상 기술
 설립 2012년 2월
 홈페이지 www.inspace.co.kr
 칠레 산티아고GBC 입주 2024년 4월~현재
 연계지원 (특화)2024년 중남미인증사업

📍 칠레 산티아고GBC
 (주)한컴인스페이스

GBC 올라타고 칠레 항공 누빈다



🏢 우리 회사

- 한컴인스페이스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관측용 초소형 민간위성 '세종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연 주인공이다. 이를 기반으로 위성과 드론을 이용한 시 기반 영상 감지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오랜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영상데이터 수집·관리·분석·판매를 아우르는 영상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10년 이상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 해외거점과 함께!

- 대전시에 드론셋을 납품해 도심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컴인스페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30만 달러 규모의 기술을 수출하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남미 시장진출을 검토했으며 특히 불법 이민 문제와 기상이변에 따른 산불확산 등의 문제로 현지 드론 기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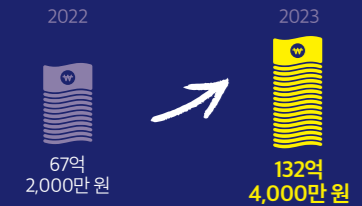
- 요가 높아지고 있는 칠레 시장을 주목했다.
- 다만 자체적으로 시장진출을 추진하기에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지 거점 부재, 현지 수요기관 발굴에 애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했다.
- 그러던 중 중진공의 해외거점인 산티아고GBC에 입주함으로써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
- GBC 입주에 따른 행정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현지 수요처 발굴, 기술 교류 매칭 지원을 통한 현지 파트너 기관과의 MOU 체결이 더욱 뜻깊었다.
- 칠레항공우주전시회(FIDAE) 참가를 지원받는 동시에 자사 출장자의 통역과 차량까지 지원받았다. 또한 현지 조달 에이전트를 소개받아 칠레민간항공국 방문시 기술 미팅 등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 이런 GBC의 지원에 힘입어 칠레항공기업 Aeromann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칠레 군부대 드론 기술 납품 관련

- 조달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 중국산이 점유하고 있는 칠레 드론 시장에 위성영상기술을 장착한 한국 드론 기술을 소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칠레 정부조달시스템 시장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 한편 칠레 현지 기술 수요와 연계하려는 파트너업체와 2024년 내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Go! Global

- MOU를 체결한 Aeromann과 기술 실무 미팅을 통해 드론 및 시스템 샘플을 칠레 시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 칠레 군부대 및 정부 기관 기술 시험 추진으로 칠레 조달 시장에 진출한 만큼 이를 계기로 앞으로 칠레를 거점으로 남미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수출국을 다변화해 해외 점유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 매출액



🌐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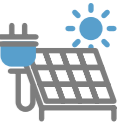
- 칠레항공기업(Aeromann)과 MOU 체결
- 칠레 현지 파트너 기업과 실질 계약 추진 중

제네시스에너지솔루션(주)
 대표이사 박건태
 주생산업태양광 설비
 설립 2021년 2월
 홈페이지 www.synertec.cl
 칠레 산티아고GBC 입주 2021년 7월~현재
 연계지원 (특화)2023년 칠레특화사업

📍 칠레 산티아고GBC

제네시스에너지솔루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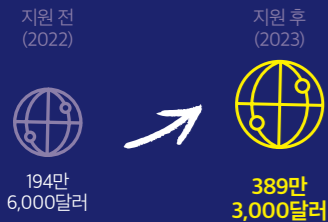
K-태양광 기술, 칠레 전력공급 해결사로 우뚝



직원 수



수출액



- 2023년 12월 칠레 PAA(아타카마 천문대협회)와 MOU 체결
- 칠레 아타카마 사막지역 알마천문대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프로젝트 추진 중

🏢 우리 회사

- 제네시스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발전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2021년 EPC 전문업체로 첫발을 내디뎠다.
- 칠레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태양광 PV 모듈 및 인버터, 태양광 구조물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해외거점과 함께!

- 칠레 진출 사업을 검토하던 초기에 중소기업으로서 부족한 인프라와 정보 부족 등의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안정적인 마케팅으로 현지 태양광 프로젝트 발주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조기 정착하고 사업 수주를 위한 법률검토 등의 행정지원이 절실했다.
- 이를 위해 산티아고GBC에 입주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행정지원 등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었다. 특히 GBC 소장이 칠레 발 주기관과 직접 면담하면서 자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 GBC 입주 이후 2023년 11월에 칠레 CESP(전력 협동조합) 아타카

마 태양광 설비 공사를 수주, 완공했으며 12월에 칠레 PAA(아타카마천문대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이어 2024년 3월에 이 프로젝트가 환경부 보조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둬 사업 가속화 촉매가 되었다.

- 또한 GBC 지원에 힘입어 중진공과 MOU를 체결한 한국수력원자력 칠레지사 담당자와 연계해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지역에 있는 알마천문대 전력공급을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2024년 5월에 칠레 아타카마 지역 APEX천문대 태양광 시범사업을 완료했으며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타탕성조사팀이 칠레를 방문해 알마천문대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프로젝트 추진을 협의 중에 있다. 무엇보다 산티아고GBC가 이와 관련한 법률 상담 및 컨설팅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어 든든한 조력자나 다름없다.

- 이 프로젝트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1억 달러 규모의 대형프로젝트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큰 국제천문대지역에 자사와 한국 공공에너지 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MOU를 체결한 중진공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해 자사를 지원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 Go! Global

- 현재 칠레 알마천문대협회와 전력공급 계약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한수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칠레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착공할 계획이다.
- 칠레에서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남미 전체 시장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